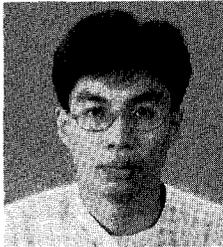


국별 · 지역별 상이한 에너지과제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경영학과
안 현 수



YES 심포지엄의 8개 소그룹 중에서 본인은 “국별 · 지역별 상이한 에너지과제 (Energy Challenges for Specific Countries and Regions)”를 다룬 그룹2에 소속되어 논문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 그룹은 캐나다, 중국 등 14개국에서 각각 1명씩 14명으로 구성되어, 각국별 에너지기술개발, 환경오염, 에너지소비실태 등 에너지/환경분야와 관련한 사례를 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토론하였다.

미래를 위한 에너지개발의 주요 목표는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주어질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급속한 세계 인구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어떤 특정한 최선의 대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해결 대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본 토의그룹의 성격상, 각국별 상황에 근거한 선후진국 문제/ 자원빈국과 자원부국의 문제등이 주로 토의되었다. 실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차이 및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격차해소를 통한 협력방안에 토의의 초점이 주어져 있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 인구증가의 안정화, 적극적인 기술 및 지식의 교환, 협력적 정신에 기초한 공동연구등이 그 기반요소가 된다고 합의하였다. 특히 에너지기술분야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연구개발의 주요 특성인 막대한 초기투자, 긴 회수기간등의 문제점 극복을 공공분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사기업 분야에까지 그 협력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원의 지역적 편재로 인해 에너지자원의 해외시장의존도가 높

은 한국, 일본등의 경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협력의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자신이 속한 국가의 상황에 맞는 실천적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국가별로 자원의 보유, 기술능력, 인구 등 여러가지 차이를 보여 일괄적인 토의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국제 지구환경 문제 협상에서와 같은 형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전체 국가를 구분하고, 각국 스스로 실행해 옮겨야 하는 개선방안과 국제협력방안의 두가지로 토의되었다.

먼저 선진국에서는 효율적인 기술개발의 확대, 지구온난화 가스 문제등의 지구환경문제에의 능동적 참여, 신에너지원 기술개발 노력의 증대등이 주요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현 에너지소비효율의 향상, 주요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증대, 소비에너지자원의 다각화, 정책적 지원등이 주요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이한 결론들은 각 국가들이 주체적으로 (68페이지에 계속)